

# 2026 동계올림픽 '개최국 밖에서'

이태리,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개최  
 썰매 종목 열릴 슬라이딩 센터 건설 포기 결정

동계올림픽 개최국에서 썰매 경기를 볼 수 없다?  
 3년 뒤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이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전망이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더게 임즈는 16일(한국시간) "코르티나담페초에 예정됐던 경기장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2026 동계올림픽의 썰매 종목은 이탈리아 밖에서 열리게 된다"고 전했다.  
 조반니 말라고 밀라노·코르티나담

페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 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말라고 위원장은 "이를 전 이탈리아 정부는 코르티나담페초에 계획했던 슬라이딩 센터를 건설하지 않고, 다른 경기장으로 (경기 장소를) 옮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 외의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IOC 및 국제 연맹

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치러진다.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코르티나담페초에 위치한 에우제니오 몬티 트랙 부지에 봅슬레이, 스키레프, 루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새 트랙을 건설하려 했지만 응찰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환경 및 재정적 부분 등에 대한 우려와 건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가 신축 경기장 건설을 포기하면서 올림픽 개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부 종목이 나뉘어 치러지게 됐다.

AP 통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더 이상 자금 지원을 원하지 않아 새 트랙 프로젝트가 무산됐다"고 지적하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썰매 경기가 열릴 수 있는 후보지로 꼽았다.  
 인사이더게임즈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102년 역사상 개최국 밖에서 경기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계올림픽에서는 두 번의 사례가 있다.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에서 코스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요트 결승전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치러졌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때는 호주의 검역법 때문에 승마 종목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펼쳐졌다. /뉴시스



고창 영선고 야구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사진은 영선고 야구부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

고창 영선고 야구부, 27일 창단식  
 초대 감독에 전주교 출신 박진호

고창 영선고등학교(교장 강현숙)가 야구부를 창단한다.  
 고창 영선고 야구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이날 창단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강현숙 교장, 윤준병 국회의원, 체육회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구부는 단장(강현숙 교장), 지도교사(이철진), 감독(박진호), 코치(정우연), 1-2학년 야구부 17명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진호(51) 초대 감독은 전주교 야구부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 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사했다.  
 군 제대 후 전주동중 코치(3년)를 시작으로 전라중 감독(10년),

효천고 수석코치(4년), 순천 남산초 감독(6년), 인상고 수석 코치(1년), 전주시 왕산구 유소년 야구단 감독(1년) 등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정우연(43) 코치는 부산고와 동의대를 졸업했다. 부산고 야구부 유격수 출신인 정 코치는 2005년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의 주역이며, 부산 대연초 감독(10년)으로 활동했다.  
 박진호 감독은 "서거석 교육감이 새롭게 시골학교가 발전할 것이 뭐가 생각하다 야구부 창단을 결정해 주셨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선고는 지난 2015년 야구부 창단 작업에 들어갔지만 승인 받지 못해 2019년까지 KBO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클럽식으로 운영해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국 골프 인구 겨냥 익산 홍보 효과 '톡톡'

주최측 추산 2만여명 방문  
 방신실 우승·박현경 선전

익산시에서 개최한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전국 골프 인구를 겨냥한 익산 홍보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익산CC에서 개최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인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이 주최측 추산 약 2만명의 갤러리가 방문하는 성황 속에 종료됐다.  
 시는 이번 대회를 시 대표축재인 국화축제 홍보와 연계해 대회장 내 갤러리 플라자에 시 특산물 및 문화관광홍보를 위한 4개 부스를 설치·운영했다.  
 특히, 국화축제 홍보 멘트가 SBS GOLF, 네이버 등에서 대회 기간 전 일 생중계되며 성공적인 전국 홍보효과를 거뒀다.  
 또한 군교구마 시식 시터투어 버스 운행 보석 홍보 등은 방문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토지신탁 김정선 대표이사 사장은 익산시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축선터 꿈나무 사업에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익산CC에서 개최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인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이 주최측 추산 약 2만명의 갤러리가 방문하는 성황 속에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방신실(시진 가운데)이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후원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되는 장학금이 지역사회 내 골프 인재들을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미중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

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익산CC에서 익산시의 대표축재인 천민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골프대회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지역 축제 홍보를 일궈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적인 행사와 축제 개최로 익

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대회 우승은 방신실(KB금융그룹)이 차지했으며, 한열여중·고 출신의 익산시 홍보대사인 박현경(한국토지신탁)이 6위를 거머쥐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KLPGA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 男핸드볼, 12년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도전

18-28일 카타르서 쇼 예선전

한국 남자핸드볼이 12년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핸드볼대표팀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출전을 위해 15일 출국했다.  
 총 11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올림픽 직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준우승팀에는 내년 3월 예정된 최종예선 성격의 세계 예선전 출전권이 주어진다.

한국은 A조에서 카타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4강에 오를 수 있다.  
 18일 UAE와 경기를 시작으로 19일 사우디, 21일 인도, 23일 카타르, 24일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  
 지난해 5월부터 흘란두 프레야타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표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바로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실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행복한 진안,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